

제주의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기획 방향

전영준*

- I. 머리말
- II. 제주 역사문화자원의 재인식과 현재성
 - 1. 제주문화와 문화콘텐츠 산업
 - 2. 제주 역사문화자원의 고유성과 유형별 특징
- III. 제주 역사문화콘텐츠의 기획과 적용
 - 1. 제주역사문화콘텐츠 기획의 인문학적 중요성
 - 2. 제주역사문화콘텐츠의 지역축제 적용
- IV. 맺음말

국문요약

제주문화의 가치는 그 원형적 상징성을 지니는 것과 동시에 문화의 유전자가 오롯이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획일적인 사고 또는 서구적 인식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온 제주인의 문화유산이자 문화원형으로서 神性和 民衆性을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의 공간은 외부 문화의 유입·융합·정착의 과정에서 고유문화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으며, 신화의 원형이 생성되고 다양한 문화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제주문화는 자체적으로도 독창성을 지닌다.

때문에 제주문화는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의 생활문화가 응축된 형태를 보이지만, 독창성을 기반으로 다른 문화에 개방적 성향을 보임으로써 독특한 형태의

* 제주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문화 융합을 이룬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것은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콘텐츠로 전환하는데 있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주제어 : 제주문화, 문화콘텐츠, 역사문화자원, 도시축제, 문화원형.

I. 머리말

최근 제주에서는 제주문화의 始原性을 찾기 위한 연구를 다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다. 신화를 통한 문화전승에서부터 역사시대의 다양한 문화를 구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유문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확장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제주문화가 지닌 독창성을 기반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창출을 이룸으로써 세계 속의 제주문화로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문화는 삶의 사유 방식이고, 삶의 질과 직결된다. 그 이유는 문화가 지닌 지속성에 기인하겠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문화가 지닌 경제적 가치 때문일 것이다. 문화가 고부가가치의 원천이 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면서부터 문화콘텐츠와 문화콘텐츠 산업은 미래 산업이자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문화콘텐츠는 기술지식(하이테크)과 함께 예술적 감성이 요청되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문화 원형 또는 문화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의 결합은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여 독창적인 문화콘텐츠로 탈바꿈하는 과정인 셈이다. 이 때문에 문화콘텐츠산업의 확장은 결국 인간의 문화적 요구에 대한 산업적 실천이라 할 수 있으며, 기존의 문화유산, 생활양식, 창의적 아이디어, 가치관, 예술적 감성 등 문화적 요소들을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고부가가치를 갖는 문화상품으로 유통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 문화콘텐츠산업의 성패는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를 새롭게 해석하고 문화콘텐츠로 기획하

는 과정에는 문화적 원형성을 유지하는 일정한 지향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즉,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이 어떠한 형식의 콘텐츠로 재구성되더라도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는 고유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제주문화콘텐츠가 한국문화의 원형질로 부각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거리적 隔絶性과 다양한 문화의 교통로 역할이 가져온 제주문화의 정착과 전승은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적 특수성이기도 하겠지만, 이를 근거로 멸실되어가는 한국문화의 원형성도 복원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II. 제주 역사문화자원의 재인식과 현재성

1. 제주문화와 문화콘텐츠산업

제주문화는 신화를 포함하여 역사시대의 각종 현상과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교류 과정에서 형성되어 왔다.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모두 포함하고 그를 기반으로 형성된 생활문화에는 개방성이 강한 문화적 요소로 구현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가 작용하는 문화산업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서도 문화는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를 지닌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짚어내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민족과 시대, 지역에 따라 문화에 대한 정의는 달라질 수 있고 문화에 대해 합의된 정의도 여전히 부재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원래 문화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되었다. 본래의 뜻은 耕作이나 栽培였는데, 나중에는 ‘교양이나 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문화인’은 ‘교양인’이나 ‘예술인’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화라는 용어는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우선은 ‘좋은 취미로서의 문화(culture as good taste)’이다. 이때의 문화라는 의미는 ‘고급스러운 취향’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는 ‘한 사회 및 그 사회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칭하는 넓은 의미로

서 문화(culture as everything)'인데 특정 지역이나 국가처럼 범주의 의미를 갖는다. 세 번째는 사회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이 문화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문화'이다. 이때의 문화는 '지식과 가치체계로서의 문화(culture as knowledge and belief system)'라는 의미를 갖는다.¹⁾

이처럼 문화는 맥락에 따라 개념이 다르게 부여되는데 통상적으로 사회학에서는 광의의 문화와 협의의 문화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광의의 문화는 '사회적 인간이 역사적으로 만들어 낸 모든 물질적·정신적 소산'을 말하는 것인데, 이중 정신적인 산물을 물질문명과 구분하여 협의의 문화라고 정의한다. 가치나 신념, 사고방식이나 이론, 철학, 생활양식 등 무형의 측면은 문화이고, 기계나 건축물, 발명품 등의 물질적 산물은 문명이라고 한다는 것이다.²⁾

문화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 중 가장 널리 통용되는 정의는 영국의 인류학자인 Sir Edward Burnett Tylor(1832-1917)의 "지식·신앙·예술·도덕·관습·법률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를 기반으로 할 때 문화는 삶의 사유 방식이고, 삶의 질과 직결된다. 하지만 21세기에 직면하면서 문화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문화의 경제적 가치 때문이다. 문화가 고부가 가치의 원천이 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면서부터 문화콘텐츠산업은 미래 산업이고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³⁾

오늘날 문화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콘텐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확대된 시각으로 인한 문화산업은 각 분야에서 다양한 소재로 창조되어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문화상품이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하는 것이다.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산업을 "형체가 없고 문화적인 콘텐츠를 창조, 생산, 상업화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문화산업에서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문화산업에서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는 '문화적

1) 홍순석·김호연 편, 『한국문화와 콘텐츠』, 채륜, 2009, 14-15쪽.

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철학대사전』, 동녘, 1989, 411-412쪽.

3) 이창식,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도서출판 역락, 2006, 16-17쪽.

내용'이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문화적 내용'은 인류의 역사, 문학, 예술 등의 원천으로부터 확보되는 것이며, 그러한 원천은 인류의 창조적 작업의 산물인 것이다.⁴⁾ 때문에 문화콘텐츠의 창작은 꿈과 감동을 전달하는 창조적 작업이라는 점에서 문화콘텐츠 전문가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스토리텔링 능력이다.

디지털정보화시대에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은 우수한 시나리오와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각색하는 창작력과 연출력, 그리고 이들을 상품화하는 기획력을 갖춘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제작 인력에 달려 있다. 문화콘텐츠가 외형적으로는 이미지와 영상으로 전달되게 마련이지만, 그것이 단순한 이미지와 영상이 아닌 이야기를 포함하는 이미지와 영상이라는 점에서 이야기는 문화콘텐츠의 원천적 생명력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문화콘텐츠에서 시나리오 또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현재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은 별다른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처음에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문화산업과 구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문화콘텐츠산업을 포함하여 보다 광의의 의미로 문화산업이 사용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둘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고 무의미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문화콘텐츠산업이 일반적인 문화산업과 다른 한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현재의 문화콘텐츠산업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지식정보화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화콘텐츠산업의 비중은 정보화 추세가 진전됨으로써 확고히 자리를 잡기에 이르렀으며, 정보화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면서 그 실질적 내용을 채워가는 핵심적 역할을 맡기 시작하였다.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지식의 정보화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면, 콘텐츠의 시대로 접어들면서는 지식과 함께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문화콘텐츠산업은 문화적 내용을 창조적으로 다루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섬세함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문화콘텐츠는 '기술지식(하ите크)'과 함께 '예술 감성'이 요청되는 분

4) 김평수, 『문화산업의 기초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3-4쪽.

야이다. 전자가 거대 자본과 협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창조성과 감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이 강력한 마이크로 미디어의 부각이다. 작지만 강력하고 특색 있는 전문 미디어가 각광받게 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의 원형 또는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원형과 활용 가능성의 가치를 찾아내어 매체에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 과정’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화콘텐츠산업의 기저에는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이 그 원형질을 유지하고, 이것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원천으로 결합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cultural commodity)으로서의 문화콘텐츠의 기획과 개발이 우선한다.⁵⁾ 그리고 이 제작과정에 포함되는 문화적 요소는 생활양식, 전통문화, 예술, 이야기, 대중문화, 신화, 개인의 경험, 역사기록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⁶⁾ 따라서 과거 제주사회의 선조들이 우리와는 다른 사상과 관점, 생활양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오늘날의 가치로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조해내는 활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재의 우리와 후손들이 함께 그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활용방안의 개

5)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문화콘텐츠 개념은 2001년 8월 17일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차세대 성장산업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공학), BT(Bio Technology, 생명공학), NT(Nano Technology, 나노기술공학), ST(Space Technology우주기술공학), ET(Environment Technology, 환경기술공학)의 5T가 성장 산업으로 잠정 결정되었으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CT(Culture Technology)가 추가되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6T가 결정되었다. CT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기술로, 콘텐츠의 기획·제작·가공·유통 및 소비과정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이것은 이공학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학, 시각디자인, 예술 분야의 지식과 노하우들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기술을 말한다. 따라서 문화가 자본이 되는 시대의 도래는 현 단계에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전 세계인의 추구하는 문화향유, Human healing에 대한 고차원의 트렌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6) 김영순 외,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2011, 28쪽.

발도 절실한 형편이다.⁷⁾

문화는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으며, 문화산업과 콘텐츠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정부의 각종 지원은 이 분야의 발전에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길어지면서 여가와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사회적 욕구의 증가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에 대한 요구와 욕망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인 인간 내면에 내재된 항상적 욕망이며, 본성에 기인하는 매우 근원적인 것임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가족과의 유대 강화나 휴식과 오락을 선호하는 여가 패턴의 변화는 물론 야외활동이 보장되는 체험형 소비를 통해 교육 효과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향 등은 모두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생활 패턴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이다.⁸⁾ 즉, 문화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는 데는 異論의 여지가 없지만 그 중요성은 경제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무엇보다도 문화는 인간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요소이며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근본이기 때문에 현재의 정부나 학계에서도 문화 연구를 첨단영역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는 사회변동과 미래 트렌드를 읽어내는 키워드임이 분명하다.

문화콘텐츠산업의 확장은 결국 인간의 문화적·사회적 요구에 대한 산업적·학문적 실천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문화상품의 기획, 제작, 가공, 유통, 마케팅에 관한 산업과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연관 산업을 의미한다.⁹⁾ 문화콘텐츠 산업은 ‘문화예술(원천)+테크놀로지(콘텐츠로 전환)+콘텐츠(비즈니스 컨셉 적용)의 결합(융합)을 통해 문화상품(콘텐츠 혹은 서비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음악, 방송, 인터넷·모바일 콘텐츠, 디자인, 패션 등을 일컫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기존의 문화유산, 생활양식, 창의적 아이디어, 가치관, 예술적 감성 등 문화적 요소들을 창의적 기획과 기술

7) 김시범,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사업화 방향에 대한 담론」, 『인문콘텐츠』 27, 인문콘텐츠학회, 2012, 172쪽.

8) 김영순 외, 앞의 책, 2011, 38쪽.

9) 국내 문화산업의 성장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된 시장 규모는 2010년에 53조 9천억 원이며, 2014년은 72조 6천억 원에 이른다.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2013), 「2013 창조산업과 콘텐츠」

을 통해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고부가가치를 갖는 문화상품으로 유통시키는 것이다.¹⁰⁾ 그런 이유로 문화산업의 재화인 콘텐츠상품의 작품화(창작·기획), 상품화(제작·표현), 서비스(유통·마케팅) 등의 각 단계마다 부가가치를 더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문화콘텐츠 분야가 새로운 산업 분야로 주목받을 수 있는 배경에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과 융합 및 신규 시장 창출,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활용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¹¹⁾

2. 제주역사문화자원의 고유성과 유형별 특징

제주문화를 형성하는 바탕에는 신화를 비롯하여 역사시대의 유구한

10) 김영순 외, 앞의 책, 2011, 34쪽.

11) 문화체육관광부의 부문별 재정 편성 현황을 기준으로 2013년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2015. 04 최신기준)를 문화예술산업, 콘텐츠산업, 스포츠산업(신분류), 관광산업 네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재정 편성이 가장 많은 문화예술산업은 102,683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자는 약 393,000명으로 집계되며 많은 사업체를 두고 일하는 것을 나타냈다. 콘텐츠산업은 108,562개의 사업체에 619,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스포츠산업(신분류)은 90,493개의 업체에 355,000명이 종사한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은 전국 사업체수 18,441개, 종사자 약 227,000명으로 사업체수와 종사자는 적지만 많은 재정이 투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 「2014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 「2013년 기준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2014).

전통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제주의 신화는 서구의 화려한 신화 못지않게 풍요롭고 체계적이다. 더욱이 이 신화들은 아직도 민간신앙의 현장에서 성서의 구절들처럼 읊어지며, 주민들의 신앙생활 근거로 작용한다.¹²⁾ 즉, 제주의 문화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독자성 있는 문화이자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도 옳곧게 전승된 문화로서 제주인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임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은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아 독자적이 고유한 형태로 남아 있는데, 크게 의식주, 제주어, 자연 및 역사 설화, 민요, 무가, 세시풍속, 민간신앙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풋감 물로 염색한 주황색 무명옷을 노동복으로 착용함으로써 옷을 짓는 추가적인 노동을 줄이는 방법이였다. 또 제주의 食文化 특징은 첫째 조리법이 단순하고 식품 손질을 최소화한다는 점이다.¹³⁾ 둘째, 분식(가루음식)과 입식(잡곡밥)이 혼재된 통합 식문화권이라는 점이다.¹⁴⁾ 셋째, 식재료의 다양성 및 제철 식재료의 적극적 이용이다.¹⁵⁾ 넷째,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 나누어 먹는 나눔의 식문화이다.¹⁶⁾ 다섯째, 구황 음식과 민간요법용 음식이 발달¹⁷⁾하

- 12) 김동전, 「제주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 방안」, 『지방사와 지방문화』 6-2, 역사문화학회, 2003, 316-327쪽.
- 13) 가볍게 끓이는 맑은 국, 냉국이나 물회 또는 썸 등의 생식이 많은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이는 조리 시에 인간의 손질을 최소화함으로써 식품 고유의 맛과 영양 성분의 손실을 줄이고 체내 이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육지부의 국류는 대부분 진한 탕류이나 제주의 것은 맑은 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한식의 맛을 진한 양념 맛이라고 한다면, 제주의 맛은 재료의 싱싱한 자연의 맛이라 하겠다(오영주·허채옥, 「제주 향토음식의 현황과 전망」, 東아시아食生活學會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2001. 9, 43-67쪽).
- 14) 미식 문화권인 본토는 입식의 쌀밥 문화가 주를 이루나, 제주는 조, 메밀, 콩 등의 잡곡 가루를 이용한 분식 문화권의 성격이 강하다. 범벅, 수제미, 개떡, 칼국수, 발효전빵(상애펛), 잡곡떡, 고구마떡, 메밀가루 국 등은 분식 문화가 발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음식들이다(오영주·허채옥, 위의 글, 2001. 9, 43-67쪽).
- 15) 제주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연중 따뜻하여 산과 들, 해변과 바다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재료의 다양성은 제주의 음식을 무려 470여 품수를 헤아리게 하였으며, 전주 지방 280품, 오키나와 150품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다.
- 16) 언제 누가 식사에 와도 국 한 그릇만 준비하면 함께 바로 먹을 수 있는 共同食의 문화가 저변에 깔려있다. 특히 일상식이 아닌 의례식은 반드시 이웃과 나누어 먹

었다는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아울러 가옥 구조도 독특한 풍습으로 남아 있는데, 결혼한 뒤에는 장남이라도 양친 부모와 한집안에서 살지 않는父子別居이다. 이러한 풍습은 어디까지나 독립생계를 주로 한 경제 확립에 그 의미가 있다.¹⁸⁾

한편,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서 독특하게 사용하는 언어인 제주어와 함께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것들은 모두 산문적인 이야기로 전승되며 話者와 聽者가 서로 대면하여 이야기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일부 사실적인 측면이 있으나 모두 허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특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허구성을 띠고 있는 이야기라는 면에서 보면 구비 문학과 그 문학을 사상적인 면에서 보면 철학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설화는 제주도라는 특수한 풍토 조건과 역사적 상황에서 삶을 영위해 온 문화이며 철학이라 할 수 있다.¹⁹⁾ 아울러 제주 민요는 노동요가 압도적으로 많고 사설이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다. 이들 노동요들은 척박한 자연 환경과 지리적 특성, 고려조부터 계속된 외침, 과도한 진상과 부역, 출륙 금지령 등과 같은 자연적·사회적·역사적 배경에서 형성되었다.²⁰⁾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세시풍속은 육지와는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생활해 온 관습이며 제주 문화를 특징짓는 생활양식이다. 세시풍속이 시간의 주기에 따라 치러지는 의례·민속놀이·사회적 행사·농사·어로·사냥·

었다. 일상식은 탄수화물 위주의 열량 섭취를 위한 음식이었지만, 의례식은 고기나 생선, 두부 등과 같이 특별한 음식으로 추렴이나 나눔을 통해 단백질 섭취의 공동 기회를 마련하였다.

- 17) 일상식의 주식은 거친 잡곡밥과 범벅 그리고 죽과 고구마였다. 범벅류와 죽류 그리고 국류가 발달한 것은 바로 이 기근을 이기기 위한 방편이었다.
- 18) 이정림, 김봉애, 「제주도 전통 瓦家와 草家의 가사노동공간에 관한 비교 연구-민속자료로 지정된 가옥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 2002.
- 19) 임재해, 「설화문화학적 관점에서 본 제사문화와 제례의 민중적 인식」, 『민속연구』 9,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1999; 김동윤, 「현대소설의 제주설화 수용 양상 연구」, 『비평문학』 31, 한국비평문학회, 2009, 98-124쪽;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 20, 한국무속학회, 2010, 251-274쪽.
- 20) 김영돈, 「濟州民謠의 分類」, 『동악어문논집』 17, 동악어문학회, 1983, 169-190쪽; 서영숙, 「제주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양상 연구」, 『한국민요학』 37, 한국민요학회, 2013, 93-120쪽.

목축의 관행이라면, 생활공간에 따라 세시풍속은 제주도라는 섬 안에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제주도의 세시풍속에서는 신앙과 농사, 어로 행위 등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해마다 제사나 굿을 하여 풍농·풍어를 비는 가장 본원적인 민속이 세시풍속이고, 아직도 신앙과 관련된 세시풍속이 많이 남아있다.

이처럼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데, 이들 역사문화자원을 선사문화·불교문화·관방문화·유교문화·해양교류·생활민속·민족운동·일제 군사시설·4·3사건·무형문화자원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복원과 보존의 문제를 제기²¹⁾하였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제주문화의 원형적 특질이 현재까지도 그 역사성을 잊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한국문화의 주변부로 여겨지며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제주문화의 과거를 극복하고, 한국문화의 부분이자 독자적인 면모를 지닌 고유성에 대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문화의 역사적 전통은 북방문화와 남방문화를 함께 받아들여 이를 절충한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오키나와, 대만, 중국의 영파를 잇는 동아시아 지중해의 중심지로 집약되는 해양문화적 요소는 제주도가 고대로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문화교류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부각된다. 아울러 살아있는 신화 ‘본풀이’의 고장인 제주는 신화의 首都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제주문화는 중세화·근대화 과정에서도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한국문화의 원형이자 동아시아의 문화허브(Culture-Hub)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²²⁾

21) 김동전, 앞의 글, 2003, 316-327쪽.

22) 제주문화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2014지방대학 특성화(CK-1) 사업계획서」, 2014.

Ⅲ. 제주 역사문화콘텐츠의 기획과 적용

1. 제주문화콘텐츠 기획의 인문학적 중요성

문화콘텐츠는 예술인 동시에 상품으로서의 속성을 지닌다. 문화콘텐츠 전문가에게 인문학적인 교양과 함께 세계시장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문화콘텐츠 전문가는 세계시장의 거시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문화콘텐츠 향유자의 기호를 분석하여 당대의 콘텐츠 트렌드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²³⁾

문화콘텐츠가 산업적으로 각광받는 데에는 디지털 기술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때문에 문화콘텐츠 전문가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라 하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문화콘텐츠가 문화적 내용을 산업화시킨 것이라는 점을 전제할 때, 한 시대의 형이상학이라는 공통된 시대정신을 어떻게 공유하고, 차별화하며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문학적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문화콘텐츠가 상상과 창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을 토대로 하는 제주문화콘텐츠의 창출에서 인문학적 상상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고 하겠다.²⁴⁾

때문에 문화콘텐츠 산업은 문화원형과 테크놀로지, 콘텐츠의 결합으로 문화상품을 만들어내는 최종적인 산물이며 제주지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제주의 문화원형(원천)에 기술적 요소를 결합하여 상품화(관광상품화·문화상품화 등 비즈니스 컨셉)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제주지역의 산업구조가 1차·3차 산업위주로 구성됨에 따라 향후 문화콘텐츠 산업도 대표산업인 관광산업이나 농어업과 등과도 면밀한 결합구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즉,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의 한 분야로 나눌 수 있는 1차 산업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 새로운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문화원형을 기반으로

23) 김영순 외, 앞의 책, 2011, 34-38쪽.

24) 김평수, 앞의 책, 2014, 21-24쪽.

<표 1 디지털콘텐츠(ICT)산업 현황>

구분		CT분야 응답기업			
		문화콘텐츠	문화응용 서비스	문화공통 기반기술	소계
사업체수 (개)	사업체수	61	5	29	95
	비율(%)	64.2	5.3	30.5	
매출액 (억원)	매출총액	2,537	31	245	2,813
	비중(%)	90.2	1.1	8.7	
종사자수 (명)	총종사자수	751	55	152	958
	비중(%)	78.4	5.7	15.9	
1인당 매출액 (억원)		3.38	0.56	1.61	
CT분야별 정의	문화콘텐츠	문화원형을 기반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방송, 음악, 게임, 영화, 출판, 공연, 전시, 문화유산 등의 사업			
	문화응용 서비스	관광, 스포츠, 문화 복지 등의 사업			
	문화공통 기반기술	창작/기획/디자인, 제작/표현, 유통/서비스 등의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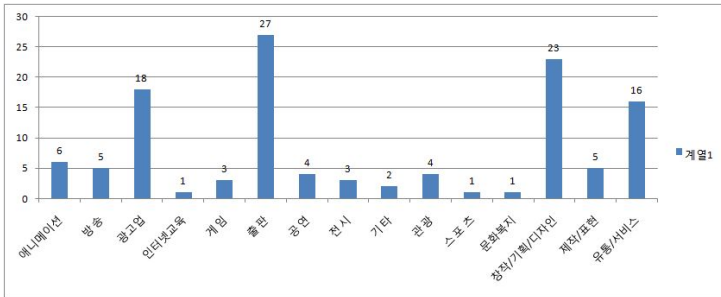
출처 : 제주테크노파크(2011), 「2011년 제주ICT산업통계조사 보고서」

하는 결합 구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정의와 제주도내 디지털 콘텐츠산업 관련사업 분야 중 문화콘텐츠, 문화응용 서비스, 문화 공통 기반 기술 분야로 제한할 때, 2011년 제주도내 디지털콘텐츠(ICT)산업 현황을 분류해 보면 <표 1>과 같다.

2011년 제주도내 디지털콘텐츠(ICT)산업 현황 분석에서 확인되는 것 중 문화콘텐츠 부문이 전체 CT사업자 중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1인당 매출액 비율도 3.38억 원으로 타 부문에 비하여 높은 매출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과 연계된 문화응용서비스 부문은 전체 사업체수의 비율 및 매출액 비중도 매우 낮으며 단순하청 형태의 기업으로 파악되고 있다. 창작, 기획, 유통, 서비스 등의 문화공통기반기술 기업군의 1인당 매출액은 문화콘텐츠 부문 기업이 4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주도내 CT부문 지역기업은 문화콘텐츠의 장르별 특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을 파악할 수 있다.²⁵⁾ 이를 보다 구체화하면 다음의 <표 2>

와 같다.

〈표 2 도내 CT 기업체 현황〉



출처: 제주테크노파크(2011), 「2011년 제주ICT산업통계조사 보고서」

<표 2>에서와 같이 제주도 내에서는 전통적 콘텐츠 중심의 출판, 광고, 유통/서비스업 부문보다 기술이 융·복합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애니메이션, 관광, 창작/기획/디자인을 중심으로 집중화되는 지원 정책이 전개되고 있고 기업체의 분포 또한 이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다. 즉 문화콘텐츠 산업의 비중을 강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문화콘텐츠산업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견인할 新성장 동력을 반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성·감성·재능 등 무형자산이 최고기술이자 생산요소가 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점이다. 그리고 저고용 성장시대의 고용창출산업으로서 신규 서비스와 융합형 콘텐츠 확대, 창의성과 지식기반의 새로운 직업군 등장으로 신규 및 청년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기업과 국가가 이미지 및 브랜드를提高시키며 제조업, 관광산업, 기타 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무한의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지역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특화산업으로 그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주가 지닌 문화원형으로서 다양한 신화와 전설의 가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의 매력은 이를 활용한 문화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25) 제주테크노파크, 「2011년 제주ICT산업통계조사 보고서」, 2011.

매우 높다는 점이 부각된다.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08~'12)으로 생물산업 및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선정하여, 제주의 다양한 문화와 문화원형을 소스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ICT 기술과 접목, 지속적인 콘텐츠 산업 발굴과 육성을 도모하였고, 2014년 들어서는 ‘제주문화융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의 섬 제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3 문화의 섬 제주 비전의 핵심과제〉

분야	주요 핵심 과제
문화기반 융합산업 육성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화·전설을 활용한 ‘스토리 제주’ 만들기 • 2018년까지 제주도 전체 예산 대비 문화 재정 3.5% 이상 확충 • 문화융성국 신설
전통과 인문문화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어 연구소 설치 • 제주옹기문화 국제엑스포 개최 • 제주문학관·유배문화관 건립
문화체감과 향유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생태지도 구축 • 문화예술사업 보조비율 개선 • 한마을 한예술 운동을 통한 문화융성 시범마을 육성
문화를 통한 소통과 가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제주문화현장 제정

이러한 정책 방향의 핵심은 독특한 제주의 자연환경 및 문화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산업 및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의 마련을 통해, 지역기업의 고용과 매출로 이어지는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에 추가적인 지원 사업을 요청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주문화콘텐츠를 산업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창의인재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약점을 보이기 때문에, 인문학적 역량과 중요성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극복 가능한 일이다.²⁶⁾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을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로 전환시키는 과정에는 제주문화가 지닌 문화적 원형성과 가치에 대한 충분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제주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1만 8천 神들의 고향’

26) 제주문화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2014지방대학 특성화(CK-1) 사업계획서」, 2014.

의 문화적 원형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수반하지만, 제주의 신화 속에 살아 있는 음악·미술·문학·춤·연극의 공존을 이해함으로써 예술장르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티프의 재발견이 필요하다. 이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조성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사업과 제주돌문화공원이 조성하는 「설문대할망 전시관」 사업에 대한 문화원형콘텐츠의 관광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제주를 설명할 수 있는 신화 원형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의 개발이나 신화를 문화원형으로 하는 콘텐츠의 생산기지화 작업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신화와 문화원형에서 출발하는 문화콘텐츠의 창의적 발현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현대사의 아픔을 드러냄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상징하는 역사자원의 문화콘텐츠화 작업이나, ‘집까지 이어지는 길’을 뜻하는 올레를 통하여 몸이나 마음을 치유하는 healing을 구현함으로써²⁷⁾ 제주의 역사·문화·문학·생활·정서 콘텐츠 개발은 인문학적 가치를 기반으로 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들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은 박제화된 기록이 아니라 생활 속에 응축된 정서나 문화에서 추출 가능하다는 점에서 박물관 등의 문화유산 관리처의 역할이 기대된다.²⁸⁾ 그리로 박물관이나 역사자료를 활용하는 제1차적 작업의 책임은 역사학자의 몫이지만, 이들의 연구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데에는 전문연구서와 대중서 및 역사문화콘텐츠

27) 김치완, 「‘카미노’와 ‘올레’를 중심으로 본 문화콘텐츠로서의 길[道]」, 『인문콘텐츠』 30, 인문콘텐츠학회, 2013, 50-62쪽에서 현재의 ‘올레’는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길의 보편성 위에서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녹여야 특유의 보편성을 확보함으로써 정교한 정체성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8) 박물관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설립되어 발전해 왔다. 박물관은 영어로 ‘museum’ 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고전적 기원은 그리스어로 ‘moucion’이며, 이것은 ‘뮤즈 이흠 여신의 자리’라는 뜻으로 ‘철학원’ 또는 ‘사색의 장소’를 의미한다. 라틴어 파생 형태인 ‘museum’은 로마 시대에는 주로 철학을 논의하는 장소로 사용되었고, BC 3세기 후반 알렉산드리아에 설립된 대박물관은 물질적 유산을 보존하고 설명하기 위한 기관이라기보다 오히려 대학의 원형이었다.

츠가 활용된다. 한국의 박물관은 역사·민속·미술 분야에 치중해 있다. 최근 들어 새로 건립되거나 지어진 박물관은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하며,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경우가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주제별 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은 전반적으로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시대별, 주제별 분류를 기반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그들의 인식을 교정함으로써 박물관이 지닌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역사 속에 산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원형은 역사학과 디지털 기술의 절묘한 융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화원형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은 순수한 학술 DB 구축과는 구별하여,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화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의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인 창작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도 되는 사업이다.

문화원형 사업이 전부 역사학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전부가 역사학의 분류사가 된다고 할 수도 있다. 문화원형 사업이 전개되면서 많은 인문학자들이 자문 및 평가 그리고 더 나아가 자료 제공이나 원고 집필의 형태로 참가하였다. ‘문화원형’이란 직접적으로 국문학, 역사학, 민속학, 미술사 계통의 연구자들이 대거 관여하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문화콘텐츠는 융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문화원형사업도 인문학의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나 디자인, 문화산업적인 측면과 밀접히 관련된다. 따라서 자연히 이 사업과 관련된 인문학자는 기술과 디자인, 영상과 내러티브,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과 연결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학제간 연구를 훈련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 점에서 문화원형 사업이 인문학에 준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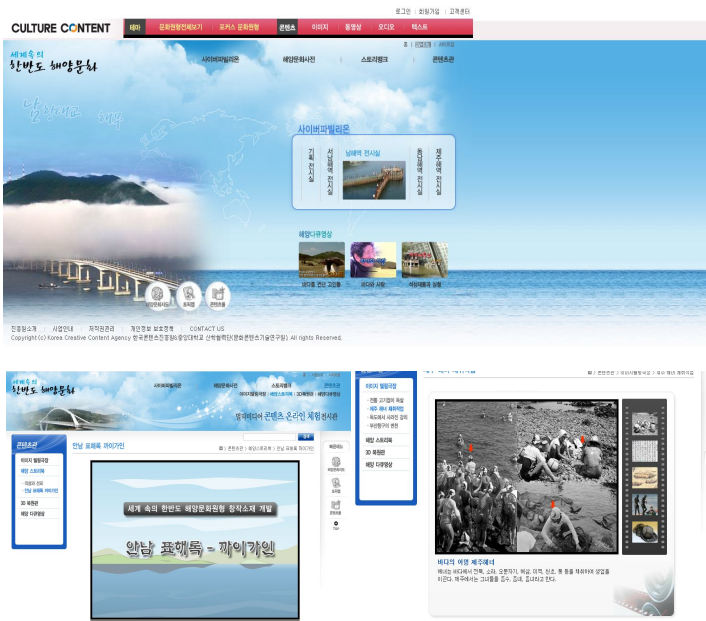
특히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와 박물관 자료의 역사문화콘텐츠화 작업 중 제주문화를 토대로 눈여겨 볼 내용에는 다양한 범주가 있을 수 있다. 제주 바다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유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테우, 즈녀의 작업 도구, 농업 관련 도구들이 지닌 기능적 요소를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역사문화콘텐츠로 재가공하고 시대별

주제별 의미를 부여하여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문화원형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과 풀이 방식에 대한 개방적 이해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2. 제주역사문화콘텐츠의 지역축제 적용과 의미

생활환경이나 박물관에서 얻을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은 실생활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의 생활자원으로 활용되거나, 지역민의 가치 체계로 녹여 낸 지역축제에서 재구성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콘텐츠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적 적용은 지역 문화유산을 새롭게 해석하고 전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따라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재해석하여 도출된 리소스들을 콘텐츠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원형사업의 한 사례-한반도 해양문화〉

로 기획·개발하여 지역의 문화를 상품화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전략시스템의 구축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축제는 문화콘텐츠의 오프라인 영역에 해당할 것이다.²⁹⁾ 지역의 역사 및 역사적 인물, 특색 있는 지방의 전설이나 설화 등 그 지역의 문화유산을 축제로 활용하는 전략은 축제를 통한 문화자치, 문화교육,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³⁰⁾ 이것은 결국 축제의 순기능³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한다고 볼 수 있다.

축제의 현대적 기능은 첫째 원초적 제의성 보존 기능, 둘째 지역민의 일체감 조성 기능, 셋째 전통문화 보존 기능 넷째, 경제 활성화 기능 다섯째, 관광적 기능이다. 이러한 축제 기능의 다양성에 비해 현재 한국의 축제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획면에서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독창성 부족, 전문적인 축제기획 및 운영인력 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빈약 등 질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하여 문화관광축제의 잠재력을 세계적인 축제로 현재화시키지 못하는 실정이고, 축제를 너무 상업적으로만 접근하는 부작용과 함께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및 파괴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문화변용으로까지 이어지므로 철저한 기획을 통해 문제점들을 상쇄할 수 있는 축제 기획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³²⁾

바람직한 지역축제의 발전 방향 또한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지역문화콘텐츠의 적극적인 발굴과 이를 접목시켜 역사문화자원의 상품화를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축제의 지속적 개최와 경제적 가치에 집중하여야 한다. 아울러 최근 각급 학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체험학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활동 요소와 교육

29) 김영순·최민성 외, 『축제와 문화콘텐츠』, 다홍미디어, 2006, 74-75쪽.

30) 지역 문화를 상품화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전략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가 주목된다(김동진, 「제주 술의 문화적 원형과 콘텐츠화 전략」,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461-493쪽).

31) 일반적으로 알려진 축제의 기능은 ‘제의성’, ‘예술성’, ‘사회성(지역성)’, ‘유회성’, ‘일탈성’으로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의 과정과 풍요와 잉여의 분배를 통한 일탈적 요소를 통하여 해소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기능한다고 보았다(이상일, 『축제의 정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8).

32) 김영순·최민성 외, 앞의 책, 2006, 46-47쪽.

요소의 접목을 통한 에듀테인먼트 가치의 전략적 구현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축제는 지역별로 상당수에 이르며, 특히 제주지역의 축제만 하더라도 58건에 이른다(<표 4> 참조).

<표 4 우리나라 지역축제 수(2014년 4월 기준)>

시·도	축제 수	시·도	축제 수
서울특별시	119	강원도	105
부산광역시	47	충청북도	50
대구광역시	33	충청남도	81
인천광역시	27	전라북도	50
광주광역시	10	전라남도	47
대전광역시	22	경상북도	48
울산광역시	27	경상남도	112
경기도	115	제주도	58
합계 951			

제주의 경우 성산일출축제를 시작으로 지역별로 상당수의 축제가 실시되지만, 대부분 지역의 산업과 연계되거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축제라는 점에서 본래적 기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전통적인 문화 현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역사적 특성이 반영된 축제의 시연이 바람직한데, 마을 단위로 열렸던 동제는 명맥만 유지되는 단점을 보인다. 다만, 1960년대 시작된 제주예술제가 축제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이지만 이 역시 문화적 전승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지금은 탐라문화제라는 이름의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탐라문화제의 시작은 1962년 5월 17·18일 진행된 제1회 제주예술제다. 이 예술제는 ‘5·16 기념’으로 출발한 예술분야 행사였으나 3년 만에 막을 내렸다. 이윽고 1965년 한라문화제란 이름으로 출발, 2001년까지 이어지다가 2002년부터 탐라문화제로 명칭을 바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탐라문화제는 1960년대는 제주예술제를 확대하는 형태로, 1970년대는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반영됐던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 1980년대는 향토성 짙은 전통 민속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었다. 지방자치가 열린 1990년대는 독자성과 지역성 차원에서 전통문화 정체성 확립에 주력하

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 대표축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서 정리된 ‘제주도 대표축제의 필요조건’으로 ①제주도의 자연, 전통, 문화, 역사를 잘 표현하는 축제로서 타 지방 축제의 소재와 차별화될 수 있어야 하고 ②확실한 킬러콘텐츠를 가져야 하며 ③축제의 발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또, ④방문객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어야 하며 ⑤관광객의 집중을 유도하고 ⑥축제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가 커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⑦전 도민이 호응할 수 있는 축제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³³⁾ 즉, 제주도의 마을에서 치러지는 비슷한 유형의 마을축제를 지양하고, 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공동체 강화와 지역정체성의 유지를 통해 제주문화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야 한다는³⁴⁾ 지적은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한편, 전통 민속의 재현과 복원이라는 점에서 이 문화제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지만, 한정된 주제로 해를 거듭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특히 축제콘텐츠와 관련하여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다. 즉, 조선시대까지 제주 지역에 전승되었던 문화콘텐츠인 ‘줄다리기’가 현재는 전승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줄다리기에 대한 기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史書에 기록된 최초의 모습은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제주목」 풍속조의 기사이다.

매년 8월 15일이면 남녀가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나누어 左隊·右隊를 만들어 큰 동아줄의 두 끝을 잡아당기어 승부를 결단하는데, 동아줄이 만일 중간이 끊어져서 두 분대가 땅에 자빠지면 구경하는 사람들이 크게 웃는다. 이것을 照里의 놀이라고 한다. 이 날에 또 그네 뛰는 것과 닭 잡는 놀이를 한다.

위의 인용문은 『新增東國輿地勝覽』 제주 풍속조에 있는 줄다리기 행사인 ‘照里戲’이다.³⁵⁾ 축제콘텐츠로서 줄다리기에 대한 재인식도 필요하

33)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제주지역 대표축제 개발방안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2010, 17-29쪽.

34)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앞의 글, 2010, 7-17쪽.

35) 제민일보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전 한라문화제에서는 이러한 줄다리기 연회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고, 농경의례라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재확인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지만,³⁶⁾ 한국의 여러 문화상 중에서도 그것도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 문화상의 전승이라는 점은 분명 재검토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현재 제주사회에서는 ‘입춘굿’, ‘들불축제’, ‘걸궁’ 등의 축제적인 연희 문화와 ‘신구간’이라는 전통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축제라는 문화현장에서 구현되거나 생활 속에 녹아 있는 현장문화라는 점에서 새롭게 해석되어 축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지역별로 구성되는 산업과 연계된 축제에서 전개될 것은 아니지만, 제주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문화 이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해소에도 부합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러한 전통문화 요소의 현대적 적용은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이 전통적으로 지녀왔던 문화적 개방성을 기초로 하여 지역민은 물론 문화이주민에게도 열려 있는 문화전통으로 전승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문화자원의 새로운 변용은 문화원형으로서의 특징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제주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창의적 작업에서 지향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 부분적이거나 검토하였다. 사실상 문화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는 요즘의 현실에서 인문학적 접근이 전제가 된 문화콘텐츠가 얼마나 될 지는 의문이다. 그것은 각 장르별, 사안별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파악해야 될 이지만, 현재적 차원의 문화

36) 송화섭은 그의 연구에서 줄다리기를 불교문화의 한 전형으로 파악하고 있다(송화섭, 「동아시아권에서 줄다리기의 발생과 전개」, 『比較民俗學』 38, 2009, 127-163쪽; 「불교의례로서 당산제와 줄다리기가 부안 내소사·석포리 당산제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0, 229-272쪽).

콘텐츠도 통용되고 있다는 부분도 분명하다. 200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으로 여가시간 증가, 문화생활 욕구의 증가는 대중들이 즐기는 영화·드라마·뮤지컬, 전시, 축제, 여행 등에 적절하게 활용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필요로 하고 그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정보기술인 IT와 통신산업 간의 컨버전스를 구축하는 ICT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콘텐츠를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산업전반은 물론 우리 생활에서도 활용되는 E-러닝과 같은 온라인콘텐츠,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의 획득 등은 모두 ICT의 확장으로 얻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지역 여행에 필요한 GPS 지원 위치 정보와 공간 및 역사 정보와 같은 유용한 기술의 보급은 문화콘텐츠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제주의 문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되었다. 선사에서 역사에 이르는 시기 동안 다양한 인문·지리 환경과 접촉하면서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였다. 때문에 다양한 문화의 융합이라는 특성과 아울러 한국의 역사문화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의 원형적 특질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문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을 전제로 할 때 제주문화는 신화와 역사가 반복되는 생활문화의 형성을 보여주며, 현재의 제주사회 역시 신화와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된 문화를 누리고 있다는 특질을 보인다.

따라서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은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정의될 여지가 많다. 특히 구비전승된 신화를 생활에서 풀어내거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살아있는 기록을 근거로 하는 문화의 재구성은 공유된 문화상을 향유하는 제주인과 문화이주민이 서로 나눌 수 있는 문화적 가치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제주문화를 형성하여 왔던 원천적인 특질인 문화적 개방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모티프도 제공될 것이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연구논문

- 김덕삼·최원혁, 「제주도 문화의 분석, 확대, 창조에 대한 다각적 고찰」, 『인문연구』 71,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4.
- 김동윤, 「현대소설의 제주설화 수용 양상 연구」, 『비평문학』 31, 한국비평문학회, 2009.
- 김동전, 「제주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방안」,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6권 제2호, 역사문화학회, 2003.
- _____, 「문화의 시대 21세기 제주역사문화의 현재적 의미와 활용」, 한국소성가 공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_____, 「제주 술의 문화적 원형과 콘텐츠화 전략」,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 김시범,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사업화 방향에 대한 담론」, 『인문콘텐츠』 27, 인문콘텐츠학회, 2012.
- 김영돈, 「濟州民謠의 分類」, 『동악어문논집』 17, 동악어문학회, 1983.
- 김진형, 「지방문화콘텐츠의 전략적 개발을 위한 멀티유즈(Multi Use) 구성체계」, 『비교민속학』 50, 비교민속학회, 2013.
- 김치완, 「‘카미노’와 ‘올레’를 중심으로 본 문화콘텐츠로서의 길[道]」, 『인문콘텐츠』 30, 인문콘텐츠학회, 2013.
-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 20, 한국무속학회, 2010.
-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 「2014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 「2013년 기준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2014.
- 박종천, 「문화유산에서 문화콘텐츠로」, 『국학연구』 18, 한국국학진흥원, 2011.
- 서영숙, 「제주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양상 연구」, 『한국민요학』 37, 한국민요학회, 2013.
- 송화섭, 「동아시아권에서 줄다리기의 발생과 전개」, 『比較民俗學』 38, 2009.
- _____, 「불교의례로서 당산제와 줄다리기- 부안 내소사·석포리 당산제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0.
- 송희영,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기획 연구」, 『예술경영연구』

24, 한국예술경영학회, 2012.

안성혜, 「지역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기획 방안의 모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12), 한국콘텐츠학회, 2008.

양영자, 「제주민요의 문화적 소통 실태와 과제」, 『한국민요학』 31, 한국민요학회, 2011.

오영주·허채옥, 「제주 향토음식의 현황과 전망」, 東아시아食生活學會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2001. 9.

유동환, 「한국 전통 문화유산 콘텐츠개발 현황과 과제」, 『국학연구』 12, 한국국학진흥원, 2008.

이윤선, 「전통문화유산의 지역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한 고찰」, 『한국민속학』 49, 2009.

이정림, 김봉애, 「제주도 전통 瓦家와 草家の 가사노동공간에 관한 비교 연구-민속자료로 지정된 가옥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40, 2002.

이창식, 「줄다리기의 원형복원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비교민속학』 38, 비교민속학회, 2009.

임재해, 「설화문화학적 관점에서 본 제사문화와 제례의 민중적 인식」, 『민속연구』 9,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1999.

제주문화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2014지방대학 특성화(CK-1) 사업계획서」, 2014.

제주테크노파크, 「2011년 제주ICT산업통계조사 보고서」, 2011.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제주지역 대표축제 개발방안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2010.

최희수, 「인문학과 문화기술의 상생을 위한 과제」, 『인문콘텐츠』 27, 인문콘텐츠학회, 2012.

한동승, 「문화기술과 인문학」, 『인문콘텐츠』 27, 인문콘텐츠학회, 2012.

2. 저서

김영순 외,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2011.

김영순·최민성 외, 『축제와 문화콘텐츠』, 다홀미디어, 2006.

김평수, 『문화산업의 기초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이상일, 『축제의 정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8.

이창식,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도서출판 역락, 2006.

임대근 외, 『문화연구와 문화콘텐츠』, 한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철학대사전』, 동녘, 1989.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창조산업과 콘텐츠』, 2013.

홍순석·김호연 편, 『한국문화와 콘텐츠』, 채륜, 2009.

Abstract

Historical Cultural Resources in Jeju and the Direction
of Cultural Contents Planning

Jeon, Young-Joon*

The value of culture of Jeju has its primitive symbolism and contains the entire cultural genes, which means that there is something in Jeju that cannot be measured by standardized thoughts or western perspectives. This is because the culture of Jeju is well representing holiness (神性) and attribute of people (民衆性), as a cultural heritage and an original form of culture of the people in Jeju that has been accumulated for a long time.

In particular, since the space in Jeju became the background to develop the culture into a unique culture during the process of inflow, convergence and settlement of foreign cultures, created the original form of myth and served as a channel to various cultures, the culture of Jeju has originality by itself.

Therefore, while the culture of Jeju is in a condensed form where the human life culture is isolated in time and space, it also is open to other cultures based on originality, featuring the distinctive form of cultural combination. Such characteristic demonstrates the strength to be able to use various media to convert the historical cultural resources of Jeju into cultural content, and implicates the possibility to use the resources in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Jeju National University.

many ways.

Key words : Culture of Jeju, Cultural Content, Historical Cultural Resource, City Festival, Original Form of Culture

교신 : 전영준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교 사학과
(E-mail : inhistory@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5. 05. 10.

심사완료일 2015. 05. 19.

게재확정일 2015. 05. 21.